

논문 16

전문계 고등학생의 지위비행과 징계경험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종단적 추정

이 희 정¹⁾ · 박 혜 숙²⁾ · 전 명 남³⁾

요약

본 종단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 패널(KEEP) 2, 3, 및 4차 자료를 이용하여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일탈행동이 징계받을 확률(즉 공식적 처벌경험)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을 통제한 후 살펴 보았다. 위계적 비선형 성장모형(hierarchical nonlinear growth model)을 사용하여 각 변수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징계받을 확률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였다(선형효과). 그러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무단결석·가출·흡연·음주경험, 최종학력목표, 가구수입, 및 선형효과를 제1수준의 변인으로 사용하고 성별을 제2수준의 변인으로 사용한 모형에서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고1·고2·고3시기의 징계받을 확률은 변화가 없었으며, 변인 중 무단결석, 가출경험 및 흡연여부는 징계 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나, 음주여부, 변화하는 학생의 최종학력목표와 가구수입은 통제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았다. 모형에 들어간 변인을 통제한 후 고등학생의 징계경험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주요어 : 징계, 지위비행, 전문계고등학교, 위계적 비선형 성장모형

I. 서론

산업사회 이후 가정 중심의 교육이 약화되면서 학생들의 탈선이나 비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중,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약 8,000여명 정도에 이르고, 그중 80%는 중도탈락하는 시점에서 비행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전문계 고등학교(공업고, 정보산업고)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전문계고의 중퇴비율이 인문계고보다 2배 이상 높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탈선이나 비행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징계의 종류는 90여종이 되며 물리적인 벌보다는 말로 타이르거나 꾸짖는 등의 정신적인

1)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3) 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별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이상돈, 2001). 징계내용은 대개 훈계,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이며 이것은 뚜렷한 과오를 범한 대상에 대한 징벌이고, 실제 교육현장에서서는 미미하고 현장성 있는 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다양한 벌이 행하여지고 있다.

전문계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비행 변수들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의 징계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생활지도를 비롯한 교육적 개입이나 사회적 지원체제를 구안해내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 징계경험에 대한 종단적 탐색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 보다 적절한 징계 대책을 강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1.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의 위기

직업교육은 학생들에게 일반 직업분야에 대한 교육과 전문 직업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 직업교육은 개인이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다. 진로 직업교육에 있어서 세계 각국은 이미 인력을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궁극적 자산으로 평가한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직업교육 체제 속에서 열린 교육사회, 평생 학습사회의 중핵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다(진미석, 2005).

1980년대 이후 대학의 양적 팽창,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체 학령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업교육 내용, 그리고 전통적 인문숭상의 사회통념 등은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의 쇠퇴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이병욱, 2005). 현재의 전문계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개혁하지 않고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초, 중학교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교육의 인식이 미흡하며, 직업적성에 대한 이해와 탐색 교육 등이 부족하여 직업진로 교육체제가 구축되지 못해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에 자신의 특기, 적성 및 희망보다 학력위주의 진로지도의 제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계고의 경우 학생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생활습관이 불성실하여 교육과정에 흥미를 상실하고 적응력이 부족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전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청소년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라기보다도, 성적이 낮아서 실업계를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박성미, 2004)고 하며, 이는 한국사회의 높은 학업성취에 대한 열망과 견주어 볼 때 실업계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마치 학업실패로 인한 낙오자라는 낙인 효과까지도 가져다주고 있다. 또한 전문계 청소년의 비행행동의 정도가 이후 시기의 범죄행동과도 연결된다고 볼 때, 미래의 범죄행동 예방을 위하여 전문계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과 문제행동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학교에서조차 학업이 뒤떨어지고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선도와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생활지도보다는 방치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다.

가정에서는 학업실패자로, 학교에서는 방치의 결과, 전문계청소년의 삶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업계 청소년 중 학업중퇴자들의 비율이 2005년 15,145명에 이르며, 이중 재입학, 편입, 복학 등을 통해 복귀한 학생은 57%에 불과하다고 한다(박갑목, 2007).

2. 학교에서의 징계경험과 그 의미

학교에서의 징계란, 학생의 법적 지위, 즉 교육을 받을 지위에 영향을 주는 처벌에 해당되는 것을 뜻하며, 징계의 종류는 크게 4 가지가 있다(조석훈, 1996).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이라는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 이외에도 훈계나 체벌과 같은 사실행위까지 징계의 종류에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적 효과가 따르는 위의 4가지 행위만을 징계로 본다. 이보다는 정도가 약하나, 훈계나 주의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기도 하는데, 학교마다, 또는 국가마다 동일한 위반 행위도 처벌받는 내용과 정도는 다양하다. 예컨대, Hemphill, McMorris, Toumbourou,, Herrenkohl, Catalano와 BAppsc(2007)는 유사한 수준의 학교 위반이라도 미국과 호주에서의 학교에서의 처벌 수준은 다르며, 회복적 사법주의적 시각에서 호주에서는 미국보다 처벌보다는 선도와 교육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박현선(1998)은 학교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이 교사의 공정한 상벌체계나 학교의 안전한 분위기 등이라고 하였다.

학생 징계규정이 각급 학교에서는 선도를 목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그 명칭이 학생 선도규정으로 사용되고 있다(이상돈, 2001). 학교 내의 봉사는 학교 환경미화, 선생님 업무 보조, 교재, 교구 정비, 도서 정비 등의 교내 봉사를 의미한다. 사회봉사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환경미화, 교통정리, 불우시설 봉사, 환경봉사, 공익시설 업무지원 등의 봉사를 의미한다.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대안학교의 단기과정 이수, 외부시설이 운영하는 상담프로그램에 참가, 약물, 흡연,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입학, 행동, 정신적인 치료교육 이수, 학생과 부모와의 협동 교육 프로그램 참가 등을 의미한다. 퇴학처분은 학생 및 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하여 타 학교 또는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 기관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가능한 직업을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이외에 2일 내지 4일간 훈계와 근신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었다(조석훈, 1996).

학생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음주, 흡연이 40.4%, 무단결석 31.3%, 구타, 폭행 25.8%, 무단가출 25.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석훈, 1996). 즉 미성년자 규범으로서 음주, 흡연, 시민규범으로서 구타, 폭행, 학생 규범으로서 무단결석과 가출이 학생 징계의 주된 사유였다.

실제로 정학과 같은 징계의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들(Raffaele Mendez, 2003; The Civil Rights Project/Advancement Project, 2000)에 의하면 징계는 결코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오히려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몰아내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을 더 낮추며 미래의 범죄행동과 같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전문가들은 비행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은 가능하면 학교가 책임을 지고 이들을 처벌하거나 징계하기 보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들의 사법적 재활주의 차원에서 선도에 앞장서기를 권유하고 있다(Taras, Frankowski, McGrath, & Mears, 2003).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모르는 이른바 ‘숨은 비행’을 저지르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상적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엄격하고 냉정한 교사나 학교당국 또는 형사 사법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처리되면 비행자라는 낙인이 붙게 되는데, 이것이 그 개인에게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을 낙인이론에 의하여 설명하고 있는 Becker(1963)에 따르면, 사회는 비행을 규정하는 규칙을 만들고 이것을 특정인에게 적용한다. 그러나 규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특정인이 저지른 행동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Wallace, Jr., Goodkind, Wallace와 Bachman(2008)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서의 전국규모의 학생 징계에 대한 분포 연구를 통하여 이같은 낙인현상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흑인과 라틴 아메리카계인과 미국 인디언 청소년이 백인과 아시아계 미국 청소년보다 징계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같이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사회경제적 계층 등의 조건이나 차별적 대우에 의하여 학생 징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전문계 청소년의 징계 경험과 관련 변인

청소년 시기에는 법률, 사회적 규범과 규칙과 관련된 행동의 준수가 이들의 발달과업으로서 개인의 성공을 재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청소년시기의 무단결석, 가출, 음주와 흡연과 같은 지위비행(status delinquencies)⁴⁾을 행하는 것은 단지 청소년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동기 시기의 학업 성적이나 사회적 유능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Malaspina & Rimm-Kaufman, 2008). 박영신·김의철·김영희(2007)도 학교에서 제적처리된 학생 및 자퇴중학생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학교생활의 문제행동을 살펴본 결과, 중2 시기경부터 무단결석, 가출의 행동문제와 학교에서의 징계경험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학생 징계와 관련되는 변인으로, 청소년의 사회계층과 지위비행과 관련된 변인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계층과 관련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의한 경비행을 포함한 연구(김준호, 노성호, 고경임, 최원기, 1990)에서는 가족의 수입과 부모의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청소년 범죄와 같은 공식통계치에서는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비행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Tittle & Villemez, 1977).

이명훈(2007)은 공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가정의 경제수준과 성별 및 가족구조와는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인문계 고교생이나 중학생과 달리 공업계 고교생들은 사교육비가 거의 들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경제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학비지원, 각종 장학금 지원, 급식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흡연에 관하여 Liverpool 중단 연구를 수행한 Milton, Dugdill, Porcellaro와 Springett(2008)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는 것은 성숙과 성인으로서의 지위를 증명하려는 시도라고

4) Sanders(1981)는 살인이나 강간, 강도, 폭행 등의 강력 범죄와 주거침입, 절도 등 재산 범죄를 중한 범죄로, 사소한 절도나 폭행을 형법위반 행위로, 가출이나 무단결석, 음주, 흡연,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의 출입 등을 지위비행으로 구분하였다. 지위비행이라 일컬어지는 이러한 행위는 성인의 경우 비행이나 범죄로 취급되지 않지만 청소년이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비행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다수 포함 되어지고 있다(김남선 외, 2001).

도 보고하였다. Wiesner, Silbereisen과 Weichold(2008)는 14-18세 시기의 남녀 청소년 음주 행동은 비행 친구의 영향이 크다고 보았다. 11-17세 청소년의 음주 남용에 대한 생태학적 환경의 영향을 6544명의 청소년과 1663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Ennett, Foshee, Bauman, Hussong, Cai, Reyes, Faris, Hipp, 과 Durant (2008)에 의하면 음주 남용은 가족, 또래, 학교와 이웃의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학업성취도 징계와 관련될 수 있는데,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2007)는 학교에서 처벌은 성적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되며, 학교에서 처벌을 많이 받을수록 비행은 더 심해진다고 하였다. 부친 소재의 야간전문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양국선과 장성숙(2001)에 의하면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력 있는 변인은 학교의 민주적 분위기, 교사의 지지라고 하였다.

학생 징계와 자기통제력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 민수홍(2005)은 부모가 자녀에게 욕설과 폭력을 사용하는 정도를 들고 있는데, 부부사이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욕설이나 폭력을 사용할수록 비행 및 범죄경험이 높고, 학교에서 받는 징계경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의 자기통제력은 지위비행, 범죄, 남 괴롭히기, 컴퓨터 관련 일탈과 관련되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Park(2008)은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토대로 한부모 가족 청소년들의 교육열망(educational aspiration)과 학생징계와 결석을 포함하여 학교생활에서의 소원함(school disengagement)을 로짓분석한 결과,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경우, 4년제 대학입학과 같은 교육열망 수준이 낮고, 학교생활에서 결석이 잦고, 징계를 많이 받는 등 학교생활이 양부모 가족에 비해 더 소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학교생활의 문제는 부모자녀관계와 가족수입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대학교육 열망은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사회생활 경험에서 형성한 미래 학습에 대한 성취 열망수준이며, 학업 수행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성공한 경험이 많은 학생들은 보다 높은 대학교육 열망 수준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의 행동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열망하는 대학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끊임없는 학습 탐구활동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이성해, 이동직, 1985).

교육열망은 진로관과 관련될 수 있는데,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열망과 진로관의 효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초대졸 진학의 교육열망을 갖고 있으면 진로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성미, 2004; 이은아, 2007).

현재까지 학생징계에 대한 연구는 미약하나마 학교가 학생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간혹 존재하며, 낙인의 효과 측면에서 분석되고 있을 뿐(강세현, 1995; 김준호, 노성호, 1993) 학생징계의 문제를 학교 생활의 문제나 지위비행과 관련하여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종단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희소하다.

4. 학교 징계와 성차

학생 징계는 성별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남자 청소년은 경찰 연행(11.8%), 구타, 폭행(29.2%), 금품갈취(12.5%), 음주, 흡연(52.1%)인 반면, 여자 청소년은 유흥업소 출입(13.5%), 불건전한 이성교제(12.6%), 용의(10.8%), 무단가출(36.0%)과 무단결석(33.3%)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자 청소년은 주로 시민 규범 중 넓은 의미의 폭력 행위가 주로 징계의 사유가 되는 반면, 여자 청소년은 미성년자 규범과 학생 규범이 징계의 주된 사유로 되어 있다. 또한 학생징계는 인문계 고교와 전문계 고교에서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는데, 인문계 고교는 음주, 흡연 행위, 전문계 고교는 경찰 연행과 금품갈취의 행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이상돈, 2001).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에게 학교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성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남자 청소년은 수업결손이라는 응답이 35.1%인 반면, 여자 청소년은 학급 동료나 선생님께서로부터의 낙인이 58.7%에 달하여 남자 청소년은 학생이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서 학생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박탈, 즉 수업정지에 따른 학업 결손의 불이익을 크게 지각하는 반면, 여자 청소년은 수업결손보다는 낙인 효과의 불이익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석훈, 1996). 사실 학생 징계 자체는 특정한 학생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이지만 실제로는 '행위자'로서 특정 학생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낙인효과를 피하기 어렵다. 나아가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 징계에 대하여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 처분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일반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 낙인효과가 함께 유발될 수도 있다.

성장과정을 통하여 남아의 비행보다는 여아의 비행에 대하여 강한 낙인효과가 존재하며, 성불평등 구조 속에서 여자 청소년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사회 환경에 내몰리게 되고 도피 수단으로써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설명도 덧붙여지고 있다(최수형, 2007; 최수형과 김준호, 2007; Chesney-Lind, Pasko, 2004). 특히나 여성들에게 기대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위반한 비행의 경우에는 정도가 심해진다고 주장한다(Sewell, 1992). 가부장적 체제에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정당하지 않은 상황속에서 어쩔 수 없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은 여성주의적 관점의 논의에서 더욱 구체화되면서 여성이 남성보다 사소한 비행의 결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은 자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낮은 사회적 지위에 따른 생존으로 이차적 비행을 일으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Chesney-Lind, Pasko, 2004). 이는 여자 청소년은 비행으로 인해 낙인을 경험하게 되어 이차 비행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자 청소년의 비행은 청소년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저지른 것은 물론 전통적 성역할에 부합되는 여성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행위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이중적 비난이 가해지게 된다. 따라서 비행을 저지른 여자 청소년들은 동일한 비행을 저지른 남자 청소년에 비해 학교에서의 징계를 더 엄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같은 낙인은 지속적 비행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 관계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므로, 비행을 저지른 후 가족에서나

학교에서의 소외, 부모의 폭력적 훈육, 징계를 경험함으로써 차후의 비행에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비행이 지속될수록 부정적 반응이 누적되어 지속비행과의 순환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은 첫째, 학교에서의 징계경험은 사회경제적 계층(Wallace, Jr., Goodkind, Wallace와 Bachman, 2008)과 무단결석, 가출과 음주와 흡연 행위(류지영, 2001; 이명진, 2008)와 같은 지위비행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으나 대부분 횡단적 연구로 한 개인의 징계경험이 어떤 양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변화하는지 밝혀내는데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해내지 못했다. 둘째, 징계규정과 원인에 대한 연구(류지영, 2001; 이명진 2008; 조석훈, 1996)는 존재하나, 시간에 따른 비행경험이 징계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셋째, 대체로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가 중학교나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제각각 보고되고 있어 입시위주의 사회에서 다소 소외될 수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교육고용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전문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징계 경험에 관한 종단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징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인 가구 수입과 무단결석, 가출, 음주와 흡연과 같은 지위 비행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5. 연구문제

- 1) 전문계고 학생들이 3년 동안 징계경험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며, 변화에 있어서 유의미한 개인차가 존재하는가?
- 2) 성별, 가정 경제적 환경(가구수입), 지위비행이 전문계고 학생들의 징계경험과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교육고용패널의 2차, 3차, 4차년도에 자료 가운데 전문계고 1학년(477명), 2학년(467명), 3학년(442명) 학생으로 이루어진 자료로서 동일한 학생으로부터 매해 2005, 2006, 2007년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와 더불어 해당학생의 가정으로부터 학생의 가정환경 특히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수입에 관한 변인을 해당가정의 부호자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사용하였다. 학생들이 3학년인 2007년도에는 새로운 학생 951건이 더해지고 있으며, 본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학생은 442명으로 남학생은 229명(51.8%)이며, 여학생은 213명(48.2%)이었다.

2. 연구방법: 변수 및 변수생성

본 연구에선 처벌경험은 종속변수로서 이항변수(dichotomous variable)이기에 시간에 따라, 처벌받을 확률이 변하는가를 알고자 비선형 위계적 성장모형(Bernoulli Hierarchical Growth Model)을 사용하였다. 처벌에 관한 변인은 처벌을 받을 경우가 있을 경우 1로 코딩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제 1수준에는 변화하는 고등학생변인으로 무단결석경험, 가출경험, 흡연여부, 음주여부로서 이들 변인은 경험이 있을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학생들의 교육기대목표는 크게 고졸, 2-3년제 전문대졸, 그리고 4년제 이상의 대학졸업이상으로 두 개의 가변수로 즉 고졸 및 전문대졸로 만들었으며, 해당 변인에 대하여 모두 0일 경우 해당 학생이 4년제 대학졸업이상의 최종학력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였다. 이 가정의 월 소득수준은 만 단위이며 연속 변수로 구성되었다. 처벌 경험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 여부를 보기위하여 시간효과(성장효과)를 사용하였다. 자료가 3회에 걸쳐 동일한 학생대상으로 얻어졌기에 시간효과를 보기 위하여 시간변인(linear term)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1학년은 0, 2학년은 1, 3학년은 2로 코딩하였다. 처벌 여부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제2수준 모형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은 성별을 사용하였다. 다음 표들은 1, 2, 3학년 때 징계경험의 종류에 대한 기술통계이다.

〈표1〉 전문계고 1학년 학생의 징계종류 및 지위비행⁵⁾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징계 여부	404	0	1	0.07	0.25
훈계, 근신	404	0	1	0.02	0.13
학교 내 봉사	404	0	1	0.05	0.22
사회봉사	404	0	1	0.01	0.10
특별교육 이수	404	0	1	0.00	0.05
퇴학	404	0	0	0.00	0.00
무단결석 경험	404	0	1	0.08	0.27
가출 경험	404	0	1	0.05	0.21
흡연여부	404	0	1	0.11	0.31
흡연량	44	1	24	7.80	5.71
음주정도	404	1	6	2.06	1.14

5) 〈표1〉, 〈표2〉, 〈표 3〉은 징계경험, 무단결석경험, 가출경험, 흡연경험이 없을 경우 0으로 코딩함.
음주정도 1) 전혀안함, 2) 1~2회/년, 3) 1~2회/달, 4)1~2/회 /주 5)3~4회/주 5)매일
흡연량의 단위는 개피임, 흡연량과 음주량을 제외하고 평균은 퍼센트로 해석 가능함.

본 연구의 기본적 분포에서 보듯이(< 표1> < 표2 > <표3> 참조), 징계경험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07, 0.11, 0.12). 징계 종류의 분포를 살펴보면, ‘학교내 봉사’가 징계의 종류에서 가장 빈번하였으며 그 다음이 ‘훈계 및 근신’에 관한 것이었다.

<표2> 전문계고 2학년 학생의 징계종류 및 지위비행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징계경험	423	0	1	0.11	0.31
훈계, 근신	423	0	1	0.02	0.14
학교 내 봉사	423	0	1	0.08	0.27
사회 봉사	423	0	1	0.01	0.12
특별교육 이수	423	0	0	0.00	0.00
퇴학	423	0	0	0.00	0.00
무단결석경험	423	0	1	0.16	0.37
가출 경험	423	0	1	0.03	0.18
흡연여부	423	0	1	0.15	0.36
흡연량	63	1	20	9.83	6.00
음주정도	423	1	5	2.18	1.12

주) <표1> 주석 참조

<표3> 전문계고 3학년 학생의 징계종류 및 지위비행

3학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징계 여부	442	0	1	0.12	0.32
징계-훈계/근신	442	0	1	0.02	0.13
징계-학교내봉사	442	0	1	0.09	0.28
징계-사회봉사	442	0	1	0.01	0.12
징계-특별교육이수	442	0	1	0.00	0.07
징계-퇴학	442	0	0	0.00	0.00
무단결석 경험	442	0	1	0.20	0.40
가출 경험	442	0	1	0.02	0.16
흡연여부	442	0	1	0.16	0.37
흡연량(하루평균개비)	70	1	30	9.63	6.08
음주정도	442	1	6	2.35	1.18

주) <표1> 주석 참조

시간에 따른 성장·변화를 모형화하는 2수준 다층모형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p>Level-1 Model</p> $\text{Prob}(Y=1 B) = P$ $\log[P/(1-P)] = B_0 + B_1*(\text{선형효과:시간})$ <p>Level-2 Model</p> $B_0 = G_{00} + U_0$ $B_1 = G_{10} + U_1$

[그림1] 기본 성장모형

[그림1]의 기본성장모형에서와 같이, 기본 모형은 시간에 따라 징계경험이 변화하는 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자료가 수집되었다. 여기에서 변수변환이 없기에 **B0**는 1학년때 징계 받을 **log-odds**값이며, **B1**은 선형성장효과를 나타내는 기울기로 통계적으로 유의할 때 매년 **B1**만큼의 징계받을 **log-odds**값을 나타낸다.

<p>Level-1 Model</p> $\text{Prob}(Y=1 B) = P$ $\log[P/(1-P)] = B_0 + B_1*(\text{선형효과}) + B_2*(\text{무단결석}) + B_3*(\text{가출}) + B_4*(\text{흡연}) + B_5*(\text{음주}) + B_6*(\text{고졸목표}) + B_7*(\text{전문대졸목표}) + B_8*(\text{가구평균월수입})$ <p>Level-2 Model</p> $B_0 = G_{00} + G_{01}*(\text{성별}) + U_0$ $B_1 = G_{10}$ $B_2 = G_{20}$ $B_3 = G_{30}$ $B_4 = G_{40}$ $B_5 = G_{50}$ $B_6 = G_{60}$ $B_7 = G_{70}$ $B_8 = G_{80}$

주) 모든 변인은 전체평균 중심으로 고정함.

[그림2] 최종모형⁶⁾

- 6) B0i: 다른 모든 변인을 통제한 후 즉 전문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징계를 경험할 log-odds 확률
 B1i: 다른 변인을 통제한 후 징계경험 log-odds 변화율(선형효과)
 B2i: 다른 변인을 통제한 후 무단결석경험이 경험이 징계경험에 미치는 log-odds 효과
 G00: 모든 변인을 통제한 후, 전형적인 전문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징계 받을 log-odds 확률
 G01: 다른 변인을 통제한 후, 남학생 징계를 경험할 log-odds 효과 (남학생효과)
 G10: 다른 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후 전체학생들의 평균 징계경험관련 log-odds 변화율
 그 외 변인들의 효과는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해석 할 수 있다.
 U0: 징계경험여부 관련 개인효과(log-odds)

연구문제 2에 답하기 위하여, 개인에 대한 반복측정치(Repeated Measures)가 각 개인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에 제 1수준에는 변화하는 지위비행, 최종학력목표, 가정경제적 수준을 제 1수준 모형에 넣었고, 제 2수준에는 변화하지 않는 개인특성 변인인 성별을 포함하였다(<그림 2> 참조). 본 모형에서 모든 변수는 전체평균중심점으로 고정하였다.

III. 결과

모형에 사용된 전문계고 학생들의 각 변수 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4>와 같다.

<표 4> HLM 제1수준 변수와 제2수준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선형효과	998	1.05	0.81	0.00	2.00
징계경험	998	0.09	0.29	0.00	1.00
무단결석	998	0.15	0.35	0.00	1.00
가출	998	0.04	0.19	0.00	1.00
흡연	998	0.13	0.34	0.00	1.00
음주	998	0.64	0.48	0.00	1.00
최종학력목표	998	0.14	0.34	0.00	1.00
최종학력목표	998	0.43	0.50	0.00	1.00
월평균가계수입	998	236.34	182.05	0.00	2500
성별	374	0.52	0.50	0.00	1.00

주) 월평균가계수입의 단위는 만원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의 전문계고 고등학생이 징계를 받을 경우의 2학년 때의 평균 log-odds 효과는 -2.416(약8%)이었다. 또한 제1수준절편 (B0)신뢰도는 0.222이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제2수준의 변량이 작음을 나타내고 있다.

절편의 무선효과와 기울기의 무선효과 상관관계는 0.747이었다. 기본성장모형은 uncentered한 상태의 결과에 의할 경우(<표 6> 참조), 징계 받을 확률이 높은 경우의 학생은 시간에 따라 징계 받을 확률이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기본 성장모형의 선형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0.291(log-odds), 즉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징계받을 확률은 매 학년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 확률은 각각 0.079, 0.103, 0.133이었다. 또한, 전문계고 학생들이 초기 징계받을 log-odds 확률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U_0 > 0.5$), 시간에 따른 징계 받을 확률(가능성) 증가에 있어서도 개인차도 없었다($U_1 > 0.5$: <표 7> 참조).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변인인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문계고 학생들의 지위비행변인(무단결석, 가출, 흡연, 음주)과 가정의 경제적 환경(월 평균수입)을 제1수준모형에, 변화하지 않은 개인특성변인인 성별을 사용함으로써 징계받을 확률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지의 여부를 제2수준모형에 사용한 최종모형에서는 각 변인을 통제된 후 선형효과(변화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모형의 모든 변인을 전체평균 중심(grand mean centering)으로 하였다. 전형적인 전문계고 학생들이 징계 받을 경우의 log-odds는 -2.899(약 5%)이었다. 또한 선형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매 학년 징계경험 확률이 비슷하였으며(항상성유지), 선형변인(성장) 무선평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데, 이는 시간에 따른 변화율 관련 개인차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무단결석, 가출경험, 흡연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다른 변인을 통제된 후, 무단결석경험이 있는 경우, 징계를 받을 경우의 log-odds 효과는 1.649 (확률=0.223)이었으며, 가출경험의 log-odds 효과는 1.492(확률=0.197), 그리고 흡연경험의 경우의 log-odds 효과는 1.683(확률=0.228)이었다. 무단결석경험이 있는 학생,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 그리고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이, 각 각 그런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5.2배, 4.4배, 5.4배 정도 징계 받을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변화하는 최종학력목표, 가정환경변인인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가정의 수입은 모형에 들어간 다른 변인들은 통제된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징계 받을 log-odds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8 참조).

<표 5> 기초모형 (Unit-specific model: Unconditional model)

고정효과	계수	Odds Ratio	SE	t	df	p
절편, G00	-2.416	0.08	0.13	-18.37	373	0
무선평과			Variance	Chi-square	df	p
U0			1.43	378.17	373	0.416

<표 6> 기초선형효과

고정효과	계수	Odds Ratio	SE	t	df	p
절편, G00	-2.456	0.086	0.135	-18.235	373	0.000
시간, G10	0.291	1.338	0.143	2.031	373	0.043
무선평과			Variance	chi-square	df	p
u0			1.416	344.628	356	>0.500
u1			0.007	142.117	356	>0.500

<표 7> 시간에 따른 징계 받을 확률⁷⁾

학년	log-odds	probability
1학년	-2.456	0.079
2학년	-2.165	0.103
3학년	-1.873	0.133

<표 8> 최종모형 (Unit-specific model)

고정효과	계수	Odds Ratio	SE	t	df	p
절편, G00	-2.899	0.05	0.16	-17.25	372	0
성별, G01	0.353	1.42	0.29	1.18	372	0.237
시간, G10	0.176	1.19	0.16	1.05	988	0.291
무단결석, G20	1.649	5.2	0.3	5.45	988	0.000
가출, G30	1.492	4.44	0.5	2.94	988	0.004
흡연경험, G40	1.683	5.38	0.3	5.44	988	0.000
음주경험, G50	0.322	1.37	0.34	0.93	988	0.352
고졸학력목표, G60	-0.762	0.46	0.43	-1.76	988	0.078
2-3년제 대졸학력 목표, G70	-0.377	0.68	0.28	-1.3	988	0.192
월평균가계수입, G80	-0.0002	0.99	0	-0.21	988	0.829
무선효과			Variance	Chi-square	df	p
U0			0.63	277.11	372	>.50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징계 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가구수입과 지위비행 및 최종학력목표 변수가 전문계 고등학생의 징계 경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횡단적 연구방법상에서 다른 연령 집단을 비교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종단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생의 징계 경험의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층모형을 적용하였다.

7) log-odds를 확률(probability)로 변형은 nonlinear 관계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Log-odds는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p = 1/(1+\exp(-L))$. log-odds \rightarrow infinity to $+\infty$. Log-odds 0은 0.5(50%) 징계 받을 확률은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계 고등학생의 징계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 고교 2학년 때의 징계받을 log-odds효과는 -2.456(약 8% 징계확률)로 나타났고, 이는 매년 log-odds의 효과는 0.176(G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최종모형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여러 변수(지위비행, 가정 경제적 수준, 최종학력목표)를 통제한 후 성장(변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본 모형의 선형 효과가 유의하였는데, 이것은 징계를 1 학년 때 받으면, 2 학년 때도 징계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모형에 의하면 징계받을 확률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단결석, 가출경험과 흡연여부로 나타났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징계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지위비행인데, 지위 비행은 폭력 비행이나 재산비행과 같은 중비행으로 이행하는 전이경향이 강하므로(이경상, 2007) 지위 비행에 대하여 학교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선도와 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지위비행의 경우 성인에게는 허용이 되면서, 타인에 대한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강압적 징계는 오히려 해당 청소년의 반감을 불러 일으켜 더욱 나쁜 부작용을 초래할수도 있다. 따라서 Simonsen, Sugal, Negron(2008)이 제안하듯이, 문제행동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보다는 긍정적 행동에 대한 강화를 촉진할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 강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징계 경험의 분포에 있어서 ‘학교 내 봉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내 봉사는 주로 학교 환경 미화작업, 교사 업무 보조, 교재, 교구 정비,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가 주를 이루고 있다(이명진, 2008). 이같은 학교내 봉사가 결석을 자주하면서 가출경험이 있고 흡연을 일삼는 학생들에게 어떤 교정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따라서 이영만(2001)의 제안대로 징계의 종류에 ‘경고’를 신설하고 ‘학교내 봉사’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는 모두 ‘특별교육’으로 통합하고 ‘특별 교육’에 학생과 학부모와의 협의를 통한 상담과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무단결석이나 가출 또는 흡연과 같은 행위가 DSM-IV 상에서 진단되는品行장애에 해당하는 성격의 문제행동일 경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징계와 같은 처벌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진단일 수 있다. 손희권(2006)은品行장애와 같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고려하여 개별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상 아동에게 적용되는 징계를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로서 기본권 제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로 해석하기도 한다.

둘째, 전문계 고등학생의 징계경험에 대한 가족 수입과 지위비행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즉 매해 얻어진 시간효과, 무단결석, 가출경험, 흡연경험, 음주경험, 고졸 학력목표, 2-3년 전문대졸 학력목표, 가구수입 정도와 성별 변인을 넣었을 때 모형에 들어간 변인을 통제할 경우, 전문계 고등학생의 징계 확률은 약 5%로 나타났다. 투입된 변인 중 무단결석, 가출

경험, 흡연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투입된 변인 중 변화하는 최종학력목표, 가구 수입은 유의하지 않았고, 성차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존에 학교에서의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가 흡연, 무단결석과 가출이라는 선행연구(조석훈, 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반면, 음주 여부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점은 흡연과 음주가 상관성이 높았기 때문이지, 음주는 영향을 안 주고, 흡연만이 징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음주 여부와 흡연 여부만을 조사하였을 뿐, 음주량이나 흡연량에 대한 변인을 사용한 점은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최종학력목표가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점은 애초에 전문계 청소년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성적 저하로 인하여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오고 나서, 최근에는 전문계 청소년 대부분이 대학 진학을 학문에 대한 진리탐구보다는 출세를 하거나, 남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욕구 때문에 공통적으로 대학진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오히려 사회적 시선이나 출세지향적인 동기로, 또는 직업장면에서 전문계 출신이라 차별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대학진학을 하려는 최종학력목표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일반계 고등학생과는 차별화된 진로상담이 필요하다(박성미, 2004)고 연구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징계경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변인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추론할 수도 있겠다. 이후에 이들이 실제로 대학진학을 하는 비율, 대학에서의 문제행동 여부 또는 대학을 졸업하여 직업을 실제로 선택하는 성인기에서 적응양상까지의 종단적 추적을 통하여 계속적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성차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생 징계의 양상 및 성차와 관련하여 전문계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징계를 더 빈번하게 당한다는 선행연구(이상돈, 2001)와는 상치되는 결과인데, 이는 본 연구에서 징계의 다양한 종류 모두를 성별로 비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징계를 당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한 경험 유무만으로 측정된 문항을 사용한 것이므로, 추후 연구를 통하여 징계유무가 아닌, 다양한 수준의 징계 여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종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기존의 횡단적 접근에서 벗어나 종단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생의 징계 경험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문계 고등학생의 징계 여부에 영향을 주는 지위 비행 요인을 살펴볼 수 있었고, 성차가 없음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 분석연구의 한계로 인하여 개인특성 변인들이 연속변수로 얻어진 경우가 드물며, 이로 인하여 **under dispersion**의 문제가 있다. 즉 제1수준에 더 유의한 변인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이론상 유의미한 변인들이 이항 변수(**dichotomous variable**)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형이 향상되지 않았다. 또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첫째, 가출시작 연령이나 가출빈도, 음주량이나 흡연량은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효과를 파악하지 못했다. 둘째, 징계의 종류에 있어서 선행연구에서 많이 언

급되는 정학이나 퇴학(Arcia, & Miami-Dade County Public Schools, 2007; Raffaele Mendez, 2003)보다는 전문계 고등학교에 한정된 경미한 수준의 학교내 봉사가 많이 포함된 징계여부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였으므로, 징계를 받은 학생의 가족관계, 징계과정에서 느낀 감정이나 낙인효과, 이로 인한 자존감의 문제 등에 대한 영향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셋째, 전문계 고등학생의 징계와 일반적 고등학생의 징계를 비교하지 못하였으며, 3년간의 종단연구로 모든 청소년의 전반적 발달단계적 시점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세현(1995). 청소년 비행의 ‘비공식적’ 통제의 낙인의 효과: 가정, 학교, 사법 기관에서의 통제 경험의 관계. 한국사회학, 29(1), 147-170.
- 김남선 · 이옥분 · 정일환 · 주동범 · 한상철 (1995). 청소년교육론. 형설출판사.
- 김준호·노성호·고경임, 최원기(1990).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공부압력을 중심으로-, 청소년범죄연구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노성호(1993).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류지영(2001). 학교 규율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저항운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승태·김연희 (2002).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4(2), 36-51.
- 민수홍(2005).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로서의 청소년 비행과 학교에서의 징계경험. 청소년학연구, 12(2), 1-25.
- 박갑목(2007).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논총, 43, 133-165.
- 박성미(2004).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진로결정장애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2(2), 124-135.
- 박영신·김의철·김영희 (2007).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에 대한 중단분석: 심리적, 관계적, 그리고 사회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1), 1-41.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국선·장성숙(2001).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연구: 야간실업고등학교근로 청소년 대상.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27-148.
- 손희권(2006). 현행 초, 중, 고등학생 징계제도의 헌법 적합성 검토. 한국교육, 33(4), 199-226.
- 유순화·정규석(2003). 청소년 음주, 흡연에 관한 사회학습이론적 분석. 청소년학 연구, 10(2), 195-214.
- 이경상(2007).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명진(2008). 고등학교 학생포상 및 징계규정 분석.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훈(2007).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변인.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2(2), 1-22.
- 이병욱(2005).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 및 교육과정개정 논의와 연계한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개선을 위한 일고. 직업교육연구, 24(2), 133-158.
- 이상돈(2001). 학생징계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세용(1998). 사회적 관계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0(2), 41-71.
- 이성해·이동직(1985). 대학교육열망에 관한 경험적 연구.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논문집, 21, 75-111.
- 이은아(2007). 청소년의 진로관 결정요인과 학년별 변화. 한국사회, 8(1), 121-162.
- 조석훈(1996). 학생징계의 특성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진미석(2005). 미국의 학교-일 이행지원정책(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의 경험과 교육정책의 이론과 실천의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15(2), 158-185.
- 최수형(2007). 비행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반응의 성별 차이.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수형·김준호(2007). 비행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지속적 비행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성 차이에 대한 연구.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자료집, 251-281.
- Arnett, J. (1998). Risk behavior and family role transitions during the twent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 3, 301-320.
- Arcia, E., & Miami-Dade County Public Schools(2007) Variability in schools' suspension rates of black students. *The Journal of Negro Education*, 76(4), 597-608.
- Becker, H. (1963).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Free Press.
- Chesney-Lind, M., & Pasko, L. (2004). *The female offender: Girls, women and crime*. Second edition Thousand Oak, CA: SAGE.
- Ennett, T., Foshee, A., Bauman, E., Hussong, A., Cai, L., Reyes, M., Faris, R., & Hipp, J., & Durant, R. (2008). The social ecology of adolescent alcohol misuse. *Child Development*, 79(6), 1777-1791.
- Gastic, B. (2008). School truancy and the disciplinary problems of bullying victims. *Educational Review*, 60(4), 391-404.
- Hemphill, S., McMorris, B., Toumbourou, J., Herrenkohl, T., Catalano, R., & BAppsc, M. (2007). Rates of student-reported antisocial behavior, school suspensions, and arrests in Victoria, Australia and Washington Stat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77(6), 303-336.
- Park, H. (2008). Effects of single parenthood on educational aspiration and student disengagement in Korea. *Demographic Research*, 18, 377-408.
- Malaspina, D., & Rimm-Kaufman, S. (2008). Early predictors of school performance declines at school transition points. *Research in Middle Level Education*, 31(9), 1-16.
- Milton, S., Dugdill, L., Porcellaro, A., & Springett, J. (2008). "Kids who smoke think that they can be adults as well": Children's smoking and transitions to adulthood. *Children & Society*, 22(4), 291-302.
- Mott, F. L., & Haurin, R. J. (1988). Linkages between sexual activity and alcohol and drug use among American adolescent.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0, 128-136.
- Raffaele Mendez, L. M. (2003). Predictors of suspension and negative school outcome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99, 17-33.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Raudenbush, S. W., & Bryk, A. S., Cheong, Y. F., & Congdon, R. (2005). *HLM 6 : Hierarchical linear and nonlinear modeling*. Chicago. U.S.A.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Sanders, W. B. (1981). *Juvenile Delinquency: Causes, patterns, and reaction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Sewell, W. (1992). A theory of structure: Duality, agency, and transform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 1-29.
- Simonsen, B., Sugal, G., & Negron, M. (2008).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s: Primary systems and practices.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40(6), 32-40.
- Taras, H., Frankowski, B., McGrath, J., & Mears, C. (2003). Out-of-school suspension and expulsion. *Pediatrics*, 112(5), 1206.
- The Civil Rights Project/Advancement Project (2000). *Opportunities suspended: The devastating*

- consequences of zero tolerance and school discipline. Proceedings of a National Summit on Zero Tolerance. Cambridge, MA: Harvard Civil Rights Project.
- Tittle, C., & Villemez, W. (1977). Social class and criminality. *Social Forces*, 56, 474-502.
- Tyler, A., & Bersani, B. (2008). A longitudinal study of early adolescent precursors to running awa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8(2), 230-251.
- Wallace, Jr., J., Goodkind, C., Wallace, C., & Bachman, J. (2008). Racial,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in school discipline among U. S. high school students: 1001-2005. *The Negro Educational Review*, 59(1-2), 47-126.
- Wiesner, M., Silbereisen, K., & Weichold, K. (2008). Effects of deviant peer association on adolescent alcohol consumption: A growth mixture modeling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5), 537-551.
- Wilkins, J. (2008). School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student attendance: Experiences of students in a school avoidance program. *The High School Journal*, 91(3), 12-24.

Abstract

Estimating Effects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Changing personal characteristics on Experiencing Disciplinary Punishment

Hee-jung Lee

Seoul Social Welfare

Graduate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ye-Sook Park

Ho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onam Univ

Myong-Nam Jun

Open Cyber University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This longitudinal study investigated how the log-odds probability of vocational high schools students' experiencing disciplinary punishment was associated with their status delinquencies over three years, controlling for both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using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Study (KEEPS: Cohorts of middle school 3rd-graders). Using two-level nonlinear growth models in which such status delinquencies as truancy, running-away, smoking, drinking alcohols along with their changing educational aspirations, and home economic conditions at level one, and gender at level two, this study assessed the patterns of the log-odds probability of experiencing disciplinary punishment. In a model where only time linear effect was used as a level one predictor, the log-odds of experiencing disciplinary punishment increased consistently over three years. However, in the full model, where both changing individual deviant behaviors, educational aspirations, and changing average family monthly income and gender were used, the linear effect of tim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the covariates, truancy, run-away experience, smoking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og-odds of experiencing disciplinary punishment, but drinking experience, educational aspirations, family income, and gender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fter controlling for those variables, there was no indica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log-odds probability of disciplinary punishment.

key words: disciplinary punishment, status delinquency, hierarchical nonlinear growth model